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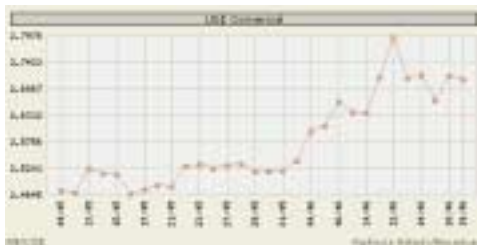
최근 브라질 금융불안 동향 및 향후 전망

□ 최근 금융불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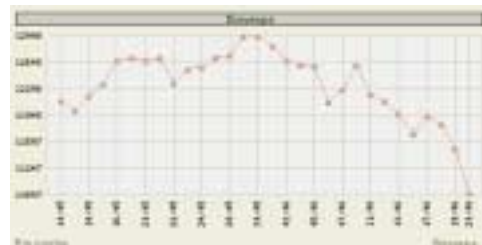
- 최근 들어 브라질 금융시장은 환율 급등, 주가 하락, 국가위험지수 상승 등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연초 2.3 수준이던 헤알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2.8까지 다시 상승, 주가지수도 연초 14,000 포인트 수준에서 11,000 포인트대로 하락함.

< 그림 1 > 브라질 환율, 주가 동향

<Real貨 대미달러 환율>



<Bovespa 주가지수>



□ **최근 금융불안의 배경**

- 첫째, 브라질 경제가 연초 기대와는 달리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고,
- 둘째,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룰라 후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으로 달러 가수요 현상(이른바, 룰라 효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경기침체 지속**

-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음. 금년 들어 세계경제 회복, 전력난 해소 등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7%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표 > 브라질 분기별 경제성장률

단위 : %

2000. 4/4	2001. 1/4	2/4	3/4	4/4	2002. 1/4
4.3	2.6	2.1	1.3	-0.7	-0.7

자료: EIU, Country Report

- 브라질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규투자를 축소하고 있고, 정부의 긴축 재정·통화정책으로 내수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속도 지연으로 인한 수출경기가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롤라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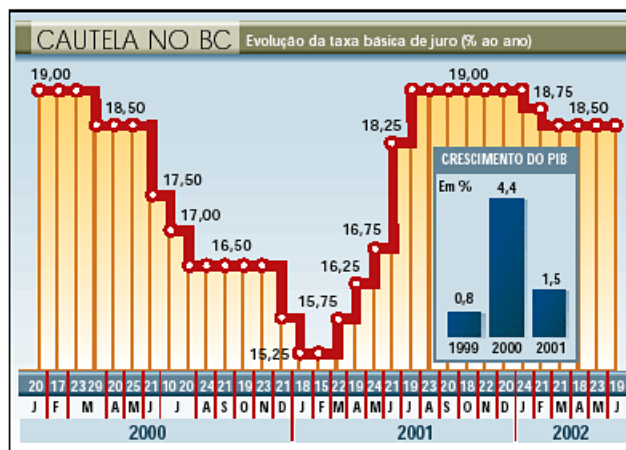
- 노동당(PT)의 대선 후보인 롤라는 지난 3차례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경력이 있으며, 과거 선거전에서 외채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한 바 있는 등 좌파 정치인임.
- 롤라 후보는 금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국영기업 민영화 반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대폭 인상, 법정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한편, 롤라 후보는 최근 들어 주요 경제현안이었으며, 과거 반대 입장을 보이던 수표세(CPMF) 연장법안에 최초로 찬성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 투자자들의 롤라 후보에 대해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음.
-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PSDB)의 세하 후보는 연초 발생한 부패 스캔들과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롤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6월 현재 롤라 후보의 지지율은 40%, 세하 후보의 지지율은 19%를 기록하고 있음.)
- 롤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규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시키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들은 브리질 익스포저를 축소하고 있음.
(이는 롤라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영기업 민영화 등 시장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임.)
- 국내외 투자자들의 헤알화 투매와 달러화 수요 급증으로 헤알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4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출로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국가위험지수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를 '롤라효과'라고 부르고 있음.

□ 브라질 정부의 대응

▶ 긴축정책기조 지속

- 브라질 정부는 예전과는 달리 대선을 앞두고도 통화증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축소하는 등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보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는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 브라질 중앙은행은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6월 19일 개최된 통화정책위원회(Copom) 월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Selic)를 종전과 동일한 18.5%로 유지기로 결정함. 한편, 중앙은행은 금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하시킨 바 있으나, 4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시켜 왔음.
- 한편,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 18.5% 유지 결정 이외에 차기 월례회의일인 7월 16일 이전이라도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음.

<그림 2>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향



자료 : O Estado de Sao Paulo紙

▶ IMF 구제금융 인출

- 브라질 정부는 금융불안이 심화되자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해 6월 14일 IMF로부터 100억 달러를 인출하기로 결정함. 동 자금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IMF로부터 도입한 총 157억 달러의 크레딧 라인 중 일부를 인출하는 것으로 브라질 정부는 2003~2004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대한 환매(buy-back)와 헤알화 환율방어를 위해 동 자금을 사용할 예정임
- 한편, 브라질 정부는 외환보유 하한선을 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낮추면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고 있음. 지난해에도 브라질 정부는 연초 2.0 수준이던 헤알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9.11 미국테러사태가 발생한 이후 2.8까지 상승하자,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약 60억 달러를 판매하여 연말 헤알화 환율은 다시 2.3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었음.

□ 향후 전망

- 과거 브라질 경제는 대통령 선거를 즈음하여 불안 양상을 거듭해 왔음. 1998년에도 10월 대선을 전후하여 브라질 위기설이 유포되었고, 실제로 1999년 1월에는 헤알화 위기가 발생하여 헤알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와 경제시스템 붕괴를 경험한 바 있음.
- 브라질 경제는 금년에도 10월 대선을 앞두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이는 등 과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998년에는 까르도주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룰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국제 투자자금 유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998년에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투자위험도가 크게 부각되는 시점이었으며, 금년에도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지속으로 중남미의 투자위험도가 크게 부각되고 있고, 미국 경기회복 지연,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경제여건도 불리한 상황에 있음.
- 이에 따라 브라질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헤알화 환율 상승, 주가 하락, 국가위험지수 상승 등 금융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물가불안과 내수 및 투자 위축, 정부 채무상환부담 가중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국제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룰라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의 급격한 시장경제정책 변동이며, 실제로 룰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 브라질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브라질 정부가 이전과는 달리 IMF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IMF의 구제금융 인출로 추가 확보된 외환으로 환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룰라효과'로 인해 브라질 금융시장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브라질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책임연구원 김영석(☎3779-6653)

E-mail : claudio@koreaexim.go.kr